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11.21.(금) 조간	배포	2025.11.20.(목)		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부국장	박항신	(02-3145-8880)
		담당자	선 임	백승훈	(02-3145-8719)

금융감독원, 서울경찰청,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

- SNS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여,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
- 금감원, 경찰,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하여 보험사기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검거하였으며 보험금 23억원 편취 혐의 적발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*하여,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·유인행위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('24.9., '24.12., '25.5.) 하였습니다.

* '24.3.7. 금감원·자배원·렌터카공제 간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

- 모집책은 SNS(고액알바사이트 등) 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·모집하였습니다.
-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, 피해자 및 동승자 등 역할 분담하며, 렌터카 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.
- 서울경찰청(광역수사단)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(편취금액 23억원)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('25.11월).

※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MOU를 체결('24.3.7.)하였고, 동 건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**자동차 보험사기** 혐의를 적발한 사례임

II. 사건 주요내용

1 SNS를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· 권유

- (유인 · 광고)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및 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여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하였습니다.
- 보험사기 은어*를 사용하며,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 및 교통사고 경험이 없거나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유인하였습니다.

* 스비(수비), 꺄꺄(공격), 비비(보험), 트르(텔레그램)

SNS 등을 이용한 공모자 모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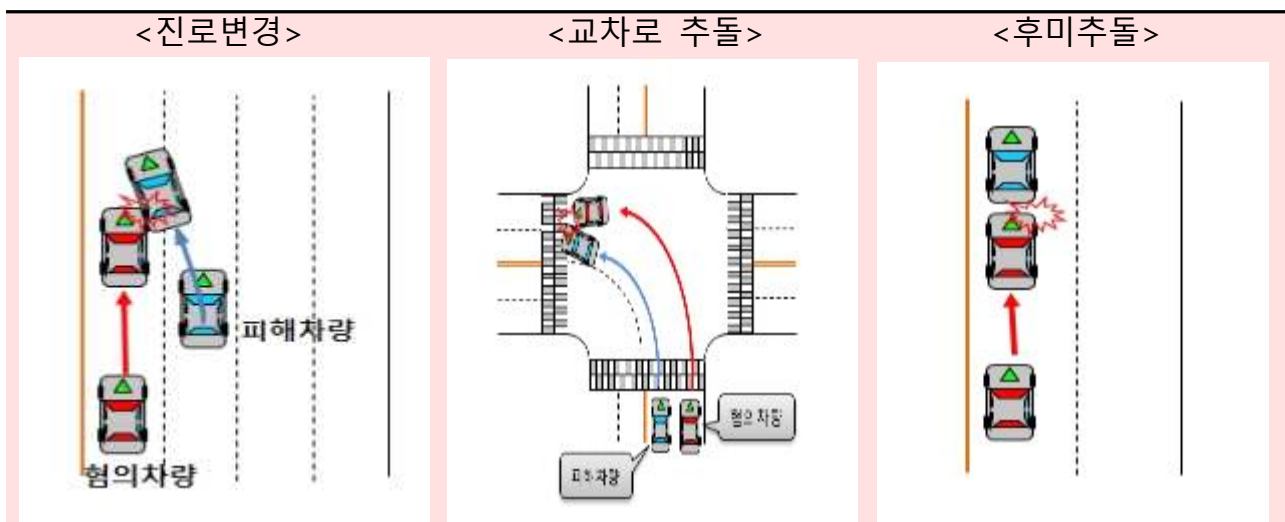
- (알선 · 권유) 모집책 등은 광고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들에게 자동차 고의사고 장소·시간을 협의하면서,
- “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”, “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”, “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” 등의 말로 공모자를 유혹하였습니다.
- 만나기 전에 모집책 등은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, 보험사기 행위전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하였습니다.

2 모집책, 공모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고의사고 실행

- (고의사고) 모집책 등은 공모자들과 협의하여 가해자, 피해자 및 동승자 역할*을 나누고 진로변경, 교차로 추돌, 후미추돌 등의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하였습니다.

* 공모자가 차량이 있을 경우 공격수(가해자), 수비수(피해자) 역할을 하며, 차량이 없을 경우 동승자로 참여하도록 협의

고의사고 유형



- 고의사고 이후 병원 등을 통해 허위·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함으로써 보험사 등을 통해 대인합의금* 및 미수선 처리비**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편취하였습니다.

* 치료비, 향후치료비, 휴업손해금, 교통비, 후유장해보상금, 위자료 등이 포함

** 자동차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

- (사후처리) 모집책 등은 합의 보험금 등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손쉽게 대인·대물(미수선) 합의금 등을 편취한 후 공모자에게 합의된 편취 보험금을 송금하였습니다.

- 한 번 참여한 공모자 등에게 재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,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 등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.

Ⅲ. 시사점 및 당부말씀

- SNS,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~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.
- SNS, 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,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아울러, 자동차 고의사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'24년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을 이용하여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·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됨

-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, 선량한 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입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아갈 것입니다.

[보험사기 신고방법]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 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